

2024년 9월 시청자의견 처리 보고서

대전MBC 경영광고심의부								
번호	게시일	제목	의견 분류 및 내용	작성자	접수경로	접수자	해당국실	처리결과
1	2024-09-02	조민경 아나운서 뉴스데스크 이제 진행 안하시나요?	㉠ 기타 (진행 문의)	thdud547@n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답글설명)
2	2024-09-02	가을개편 토요일 mbc뉴스투데이 확대편성요청	㉠ 기타 요청	daeyeong20@n	홈페이지	이재근	보도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3	2024-09-05	대전 mbc 인구비율에 맞춰서 지역분배하여 공정보도 해주세요 대전사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충남사는 사람도 생각합시다	① 보도내용 불만	sk7942@n	홈페이지	이재근	보도국	처리완료 (답글설명)
4	2024-09-06	아동세터불법증축및특수장애아동불법노동갈취	㉠ 기타 (제보)	gjpil-75@k	홈페이지	이재근	보도국	처리완료 (답글설명)
5	2024-09-09	청양 지천댐 2차 환경부 설명회 오늘(9) 개최, 환경부에 팩트 체크 하셨나요?	㉠ 기타 (보도 참고자료)	palette25@n	홈페이지	이재근	보도국	처리완료 (답글설명)
6	2024-09-10	청양 지천댐 2차 환경부 설명회에 관련한 게시물	㉠ 기타 (보도 참고자료)	tangba2019@n	홈페이지	이재근	보도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7	2024-09-12	가수 문의	㉠ 기타 문의	utilman4@n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답글설명)
8	2024-09-23	60주년 공개방송 참여방법	㉠ 기타 문의	814assa@n	홈페이지	이재근	전략기획실	처리완료 (답글설명)
9	2024-09-25	대전MBC 창사 60주년 공개방송에 다녀온 영광을 누렸네요	㉠ 기타 (감사인사)	algus4863@n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0	2024-09-25	60주년 기념 라디오 공개방송 정말 뜻깊고 행복했습니다~	㉠ 기타 (감사인사)	junio2571@h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1	2024-09-25	나의 MBC 나의 모닝쇼...	㉠ 기타 (감사인사)	horseboy0318@g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2	2024-09-25	대전MBC 창사60주년 특집 라디오 공개방송에 초대해주셔서 감	㉠ 기타 (감사인사)	dhfft11@d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3	2024-09-25	대전 mbc 60주년 공개방송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기타 (감사인사)	nse06101@n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4	2024-09-25	창사 60주년 라디오 공개방송에 초대 된 행운아가 울리는 후기	㉠ 기타 (감사인사)	jungsoki1130@h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5	2024-09-25	대전 mbc 창사 60주년 공개방송	㉠ 기타 (감사인사)	suri53@n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6	2024-09-25	창사 60주년 공개방송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	㉠ 기타 (감사인사)	2006math@n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7	2024-09-25	공개방송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감사인사)	hot935@h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8	2024-09-26	60주년 공개방송 감동이었습니다.	㉠ 기타 (감사인사)	navi1366@n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19	2024-09-26	1FM 박선자의 시대공감은 종방인지요?	㉠ 기타 문의	each2799@n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답글설명)
20	2024-09-27	가을 나무에 아름답게 핀 60개의 꽃	㉠ 기타 (감사인사)	horseboy0318@g	홈페이지	이재근	편성국	처리완료 (의견접수)

□ 시청자게시판 의견 및 답글

게시일	시청자 의견	처리결과 (답글)
9/2	<p>〈조민경 아나운서 뉴스데스크 이제 진행 안하시나요?〉</p> <p>9.1일 방송된 저녁 뉴스에 조민경 아나운서님 대신 유지은 아나운서님이 나오신것같은데, 이제 뉴스데스크 진행을 안하시는 건가요?</p>	<p>안녕하세요 대전MBC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민경 앵커는 평일 뉴스데스크를 진행합니다.</p>

9/2	<p><가을개편 토요일 mbc뉴스투데이 확대편성요청></p> <p>2024년 가을개편에는 토요일 mbc뉴스투데이 방송시간을 20분에서 80분확대 및 1.2부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p>	답글 없음
9/5	<p><대전mbc 인구비율에 맞춰서 지역분배하여 공정보도 해주세요 대전사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충남사는 사람도 생각합시다 ></p> <p>인구 충남 213만,대전143만,세종38만 인구입니다. 근데 대전mbc뉴스나 대전mbc의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 143만밖에 안사는 대전소식만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예산은 충남대전세종 다 보도한다고 받지 않아요!?</p> <p>그리고 인터뷰도 웃겨요 경찰서는 대전에만 있나요? 재래시장은 대전에만 있어요? 공장은 대전에만 있나요? 스포츠팀은 대전에만 있나요? 천안아산,충남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대전소식만 집중보도 하는건가요!?</p> <p>인구비율에 맞춰서 보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충남인구 213만명 입니다. 대전143만명보다 80만명이나 많아요</p> <p>충남 볼모로 잡고 예산받아서 대전보도만 하지합시다 솔찍히 천안아산은 대전에 별관심 없어요 공정하게 인구비율에 맞춰서 보도 해주세요</p>	<p>안녕하세요 대전M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천안, 아산 등 충남 지역의 소식들도 다양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p>내포지사를 중심으로 천안지역은 물론 충남 서북부와 동남권 지역 뉴스까지 균형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
9/6	<p><아동센터불법증축및특수장애아동불법노동갈취></p> <p>안녕하십니까저는5년전개인적인사정으로인하여이혼을하고혼자세아이를키우는싱글대디입니다대저으로내려와서이곳저고해해다산성동에와서자리잡게되었는데하도어처구니가없고다른아이들도제아이들과같은피해를볼까염려되는마음에조심스럽게글을올립니다제 가이사왔을당시그래도기독교인이라집근처겨자씨교호라는곳에단계되었는데그곳을다닌지얼마지나지않아교회목사님소개로당시주안아동센터담당자를알게되었는데저는솔직히애들도심란하고저도머릿속이심란하여그곳에본낼생각이없었는데제가뇌경색으로몸이불편한사실을알고목사님께서나담당자나보내라고해서보냈습니다처음몇년동안은잘다니더군요세아이모두다그러데작련말부터올해초확장이전하면서꿈차람아동센터로바뀌면서부터는담당자가돌변하더군요저도모르게장애가있는제첫째아이에게센터리모델링현장에서일도시키고아이가2층에서낙상하였는더도치로는커녕계속일을시켰다고합니</p>	<p>안녕하세요.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재를 위해서는 제보자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제보 전용 게시판이나 제보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p>(제보전용 게시판) 대전MBC홈페이지 상단 메뉴 -> “NEWS” -> “뉴스제보” * 뉴스 제보 게시판 링크: https://mbcjeb.com/?c=tj</p>

	<p>다그리고무슨편법을썼는지허가도나지않는평수에서구청공무원에게청탁을넣어허가를받은것같더군요요아이가장애인이것도마음아픈데그점을이용해서자신의이익을취하는사람들을고발합니다.</p>	<p>(제보전화) 080-800-3030</p>
<p>9/9</p>	<p>〈청양 지천댐 2차 환경부 설명회 오늘(9) 개최, 환경부에 팩트 체크 하셨나요?〉</p> <p>안녕하세요. 청양에 연고를 둔 충남도민입니다. 이번 정권 하에서 MBC가 받는 피해를 고스란히 지켜본 입장에서 뉴스든, 총선 개표방송이든, 올림픽이든 MBC를 작게나마 응원하기 위해 항상 채널 고정해놓고, 관련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p> <p>청양 지천댐 2차 환경부 설명회 오늘 개최 (2024년 09월 09일 07시, 김지훈 기자)</p> <p>오늘 아침 뉴스 관련해 〈환경부 2차 설명회〉는 공식인가요? 환경부에 문의하셨는지 해서요.</p> <p>환경부가 지천댐 인근 2km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는데, 보도는 2차 설명회라고 되어 있어 혼란과 주민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확인 후 보도 부탁드립니다.</p> <p>〈설명회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1.환경부 홈페이지 고시공고 안 올라옴 -환경부는 설명회 날짜와 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공고를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않았습니다.</p> <p>2.용어의 출처 '2차 설명회'라는 기사를 쓴 다른 기자님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용어의 출처가 충남도라고 말했고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업무에 대해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환경부에 꼭 질문해주세요.</p> <p>3.일부 주민만 참석 오늘 설명회가 진행되는 지천리 마을체육관 앞에 붙은 현수막 첨부합니다. 수몰 2km내 장곡리, 화산리 주민 전원불참 죽림리 이장 및 일부 주민 불참 입니다 설명회장 입구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주최·주관도 없습니다.</p> <p>장곡리, 작천리, 죽림리, 화산리 이장님들은 오늘 설명회에 대해 행정기관(군, 충남도, 환경부)으로부터 설명회가 있다고 연락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p>	<p>안녕하세요. 대전M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지천댐 관련 이슈는 지역민들과 충남도-환경부, 시민환경단체 사이의 찬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p> <p>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의견과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하겠습니다.</p>

	<p>보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p>	
<p>9/10</p>	<p><청양 지천댐 2차 환경부 설명회에 관련한 게시물 ></p> <p>환경부 1차 설명회는 무산됐는데, 2차 설명회는 어감이 맞지 않는듯합니다.</p> <p>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댐건설관리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p> <p>설명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주민 의견 청취> 시 아침부터 경찰버스 13대와 경찰병력 300명이 마을입구와 다리를 가로막았습니다.</p> <p>2차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 등 올바른 용어로 보도 부탁드립니다. 찬성측 서명을 받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설명회가 맞는지는 꼭 환경부에 질의해주시시오.</p>	<p>답글 없음 (위 내용과 동일한 성격)</p>
<p>9/12</p>	<p><가수 문의></p> <p>이은하 fm 모닝쇼 중간 08시에 나오는 노래 제목과 가수가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p>	<p>안녕하세요 대전MBC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3부 로고송은 상상밴드의 베니 목소리로 원곡은 'lovely girl' 입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첫 곡은 New Hope Club의 'trouble in paradise'입니다. 어떤 가수를 궁금해 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2곡 모두 알려드립니다.</p> <p>** FM모닝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선곡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p>
<p>9/23</p>	<p><60주년 공개방송 참여방법></p> <p>대전 mbc 60주년 공개방송 녹화가 26일 4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청하고 싶은데 초청장을 갖고 있어야만 방청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초청장을 받을수는 없나요? 초청장없이 들어갈수는 없나요?</p>	<p>안녕하세요 대전MBC 창사60주년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녹화 장소 최대 수용 인원을 고려했을 때 초청자 외 추가로 초청장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9/25 <대전MBC 창사 60주년 공개방송에 다녀온 영광을 누렸네요 >
대전MBC 창사 60주년 공개방송에 다녀온 영광을 누렸네요
아침7시에서 9시까지 하는 이은하의 FM모닝쇼 애청자라는 사실 덕분에 공개방송에 다녀왔네요.
찐으로 모닝쇼는 첨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 유치원다닐때부터 지금 막 군대전역해 아들이 집에 올때까지 기쁠때도 힘들고 지칠때 저의 심리상담창구가 되어주기도 했고, 하소연도 하면 다 들어주는 저의 친정집이기도 했네요.
그런 모닝쇼에서 공개방송 한다고 하니 너무 가보고 싶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제 핸드폰에 참여여부 확인하시는 문자를 받고 제가 "앗싸" 크게 소리질렀네요
그리고 남편,큰아들, 군대간 막둥이, 옆라인 언니들,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공개방송 간다고 자랑질 엄청 했네요
사실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구요. 어릴적 NEXT 공연말고는 음악공연을 가본적에 없던 저라 공개방송에 은하디제이 만날 생각에 그리고 숫자로만 알고 있던 모닝쇼가족들 볼 생각에 불면증아닌 불면증을 앓았네요.
당일에 조금도 늦고 싶지않아서 일찍 도착했는데요.긴장해서 그런지 녹화장 드러가기전까지 화장실도 자주 다녀왔네요
그리고 드디어 은하디제이 실물영접~~~표현 잘 못했지만 너무 반갑고 마냥 좋았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느라 사진도 많이 못찍었네요
가족특방에 은하디제이 사진 몇장 투척해주고 "진짜 은하이모야"라고 특도 남겼네요
은하디제이가 기억해주는 애청자의 사연들(군화,헌혈증)을 통해 결혼하신 부부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큼 가족이 되었다는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정오의 희망고 주디~~도 어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어찌나 센스가 넘치시는지 ~~~
함께 선곡해주신 샤키라의 음악도 잘 들었고, 모닝쇼애청자 스타가 되신 오정숙님의 센스있는 말씀씨도 너무 좋았네요
솔직히 한편 뒷자리로만 알다가 얼굴을 볼 기회가 생기니 더 반갑더라구요.특히 나흥기선생님 그정성 말로 다 할 순 없지만 떡 감사히 맛나게 잘 먹었네요
가수 왁스~~진짜 CD들어 놓을 줄 알았네요.노래 너무 잘하시고 예쁘시기도 하시구 노래들으며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에 눈물났네요. 김연지~~씨야 "사랑의 인사"를 라이브로 듣게 될지 몰랐네요 너무 영광이었어요."밥,밥,밥"이세준님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으려구요.재치있는 말씀씨도 좋았지만 역쉬 노래가 ~~~멋지시더라구요
장난처럼 당일아침 저희 남편이 "설레여서 잠도 못잤네~~그렇게 좋아???" 그리고 출근했는데 저의 대답은 "응~~~정말 설레고 좋아"

	<p>요즘 다들 핸드폰에 노트북, 컴퓨터, TV를 더 좋아하고 중시하지만 그래도 매일아침 라디오가 있어 행복한 1인 이예요 그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거 같아 제대로 인사를 못했네요. 이런 기획을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또 부탁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잘 부탁드립니다.</p>	
<p>9/25</p>	<p>〈60주년 기념 라디오 공개방송 정말 뜻깊고 행복했습니다~〉 대전 mbc 라디오 FM모닝쇼는 저희 부부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줬습니다 만만지 100일 되던날 사랑고백한 남편의 사연을 시작으로 상견례날의 떨림, 예물 맞추러 가던 설렘, 출근길의 고단함, 결혼식 다음날 충만한 기쁨, 책출간후 감동 등 매일매일 그날의 이야기를 은하DJ의 응원과 함께 해왔어요 그런 저희에게 직접 은하DJ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가슴 벅찼습니다 직접 보는건 처음인데 이렇게 낯설지않은 느낌이라니요 ㅎㅎ 한동안 못봤던 동창친구를 만나는 기분이랄까요? 초대해주신 가수 분들의 입담과 가창력에 감동은 두배가 됐어요 라디오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전 MBC 에서 애청자를 초대해 소통하게 해주신 이번 기획력에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p> <p>앞에 나와 직접 인사해주시던 임세혁 님께서 기획하셨다던데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종종 이런 이벤트 기대하겠습니다~~ 흥해랏 대전 MBC!!!!</p>	
<p>9/25</p>	<p>〈나의 MBC 나의 모닝쇼..〉 안녕하세요 공개 방송 참여 후기를 써보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모르나 내 느낌과 생각을 담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까 합니다</p> <p>저는 대전 MBC 애청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모닝쇼에 매일 글을 쓰다보니 무엇에 길들여진 것처럼 아름다운 습관이 되었나봐요 모닝쇼 애청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 관심이 늘어났고 MBC 홈페이지를 저장해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은하DJ가 MBC 창사 60주년 공모도 알려주어 참여 하게 되었고 또 처음으로 공개 방송 초청까지 받아 무척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23일 휴가를 내고 오전 일찍 도착해 몇 시간을 기다리다 오후 1시30분쯤 공개홀에 들어 갔는데 긴장과 떨림과 어떤 색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임세혁 국장님의 친절한 인사와 설명이 멋졌고 유지는 아나운서의 완벽한 진행이 참 좋았습니다</p> <p>특히 인사를 나누진 못했지만 처음 보는 우리의 모닝쇼 이은하DJ가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반</p>	

	<p>가웠죠 그리고 이윤주 진행자도 볼 수 있어 무척 반가웠고 저처럼 초청으로 오신 애청자분들도 인사는 하지 않았지만 왠지 반가웠습니다</p> <p>그렇게 즐거운 오후 2시의 1.2부 시간을 마치고 이어진 3.4부 가수들의 무대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가수 공연을 가본 적이 없어 몰랐는데 내 바로 시선 앞에서 한국 최고의 가수들이 라이브로 들려준 그 노래에 감동 또 감동을 했습니다 근거리서 얼굴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직접 아름다운 목소리로 실감나게 불러준 왁스씨와 이세준씨 김연지씨에게 무척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나의 MBC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고맙고 정 많은 모닝쇼 이은하씨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p> <p>나에게 다시없을 특별한 하루였고 시간이었습니다 늘 내 삶에 MBC로 내 인생에 모닝쇼로 기억되고 각인되는 멋진 추억이 될 겁니다</p> <p>언제나 우리 곁에서 소중한 정보와 아름답고 행복한 프로그램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대전 MBC의 사랑속에 모든 애청자들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p>	
9/25	<p><대전MBC 창사60주년 특집 라디오 공개방송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우선~ 첫인사로~ 대전 MBC 창사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창사 60주년을 맞이하여 시.청취자 사연 공모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토록 애정하는 이은하의 FM모닝쇼에 사랑을 담아 사연을 보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귀하디 귀한 자리에 초청이 되어 업무가 바쁜 중에도 눈치없이 반차를 내고 부리나케 MBC 공개홀을 방문하게 되었네요. 매번 천변도로를 지나며 저기에 MBC건물있다~ 그랬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MBC건물 안으로 입장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도 영광스런 일이였습니다...ㅋㅋ</p> <p>친절한 안내는 기본이고, 착석 후 진행되는 순탄하고 정돈된 진행 상황들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을지 방청하는 내내 감탄과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임세혁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센스있게 준비해 주신 빵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제 사담이지만, 10년 전쯤 둔산 모..수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살짝 빤 적이 있었는데 요. 그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 그대로여서 무척 놀랐습니다. 세월을 비켜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ㅎㅎ)</p>	

그리고, 저의 원픽이죠..^^

무척이나 만나고 싶었던 은하님과 짧은 만남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ㅎㅎ
핸드폰 뒷자리의 번호와 사연으로만 기억되었던 청취자들을 한 분, 한 분 뵙게 되는 순간도
은하님이 말씀하신 또하나의 가족이란 표현처럼 너무 맘으로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자리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면 기꺼이 참여할 의사 200% 있습니다..ㅎㅎ

요즘은... 아주 가끔 오후에 외근 업무시에만 차 안에서 듣던 정오의 희망곡을 사무실에서도
MBC 온에어로 듣게 된 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디도 너무 반가웠구요~^^

라디오는 계속 들어왔지만, 요즘처럼 심취해서 청취하기는 살아생전 첨인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매력이 넘친다는 의미죠.
또하나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은하님과... 새싹에서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이윤
주...주디님...
두 분의 진심 담긴 진행 덕분에 편안하게,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애청할 수 있는 것 같습
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코 앞에서 연예인 세 분을 직접적으로 만나 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
고~~~^^

너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추억 만들어 주신 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무지게 나온 저의 뒷통수도 길이길이 나올 예정이라 앞으로도 쭉 추억돋게 될 것 같습니
다..ㅎㅎ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비로소 느낀 사실이지만, 제 옆에는 언제나 MBC가 있었더라구요.
라디오를 켜면 무조건 97.5MHz... TV를 켜도 우선은 MBC채널~
70주년에도 멋진 기회 행운처럼 저에게 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 즐겁게 시.청취 하겠습니다..

이번 공개방송을 위해 힘 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MBC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9/25	<p>〈대전mbc60주년 공개방송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p>라디오를 처음 들은건 정오의희망곡 이지만 Fm모닝쇼 또한 너무 소중한 방송이기에 어느 한 방송을 택해 사연을 보낼수가 없더라구요 모닝쇼는 제가 힘든일이 있을때마다 은하님의 따뜻한 위로가 큰힘이 되었었고 정오의희망곡 윤주님 방송은 듣게된지 그리 오래되지않았지만 6610 제번호를 기억해주시고 사연을 읽어주시고 제소식을 궁금해하셨다는 말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p> <p>정오의희망곡에서 방청 문자가왔을때 쑥스럽기도하고 혼자올 용기가 없어서 언니와 같이가도 되냐고여쭙보았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좋은시간을 보낼수 있었습니다</p> <p>소중한시간 만들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p> <p>앞으로도 이런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p> <p>다음에도 꼭 초대해주세요</p> <p>고맙습니다 대전mbc 사랑합니다</p>	
9/25	<p>〈창사 60주년 라디오 공개방송에 초대 된 행운아가 올리는 후기 입니다〉</p> <p>안녕하세요.</p> <p>저는 이번 공개방송에 아주 특별하게도 출연을 한 모닝쇼 애청자 오정숙 입니다.</p> <p>모닝쇼 에서 60주년 사연 공모 사연을 듣고 저도 살짝 손가락 얻어봤는데 감사하게도 라디오 공개방송에 초대를 받았습니다.</p> <p>제가 은하 씨 모닝쇼 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욱 듣고 있는 걸 친정 식구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초청 받자마자 친정 식구들한테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p> <p>신랑이랑 딸 한테는 방방뛰고 방송국 가기 전날은 떨려서 잠도 못잤습니다.</p> <p>16년을 한결 같이 듣다 보니 공개 방송 초청에 출연 이라는 특별하고 귀한 추억을 주셨습니다. 한 우물 파길 잘했다 싶습니다.</p> <p>난생처음 라디오 공개방송이라 엄청 기대하고 떨면서 갔습니다. 은하 씨 보고 좋아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헤~~~</p> <p>보고 싶었던 은하 씨는 물론 유지은 님 이윤주 님 살짝 살짝 훑쳐본 남유식 님 방송 에서 들던 목소리보다 실제 목소리가 더 좋았던 임세혁 님 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그리고 방송국 은 처음이라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방송을 만드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 분들 덕분에 좋은 방송을 듣고 볼 수 있어 감사 드립니다.</p> <p>임세혁 님께서 공개방송 하려고 있는 힘껏 준비하셨다는 말씀에 정말 감동 이었고 욕심을 부리자면 라디오 공개방송을 자주 볼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p> <p>제 신랑과 딸도 모닝쇼 왕 팬이라 참석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낮 이기도 했고 동반 참석이 안돼서 살짝 아쉬웠습니다.</p> <p>1.2 부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그런지 긴장이 돼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p> <p>다행히 방송 사고는 내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싶었고 3.4 부는 오롯이 즐길 수 있어서 정말</p>	

	<p>행복했습니다. 이세준 님은 노래는 물론 말씀도 정말 매끄럽게 잘하시고 왁스 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황혼의 문턱을 불러주셔서 아주 귀 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씨야 김연지 님은 목에 핏대 까지 세우며 열창하는 모습에 아주 낮을 빼앗겼고 주고 받는 토크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 눈엔 연예인 분들 보다 유지은 님 이 더 예뻐 보이는 마법이...팔은 안으로 굽는 법..ㅎㅎ 아이를 키우다 보니 문화 공연을 즐기기가 조금은 어려웠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바로 코앞에서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다니 정말 믿기 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운 이 좋아 초청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청취자 분들과 함께 공개방송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항상 번호로만 사연으로만 만나던 청취자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은하씨와 다시 한번 멋진 추억을 만들게 해준 대전 엠비씨 아주 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취자 에게 사랑 받는 대전 엠비씨 가 되길 바라며 정말 정말 좋았고 특별했던 공개방송 후기를 마칩니다. 참, 제 딸이 수련회 갔다가 방금 왔는데 동영상으로 은하이모 본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계속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신랑도 회사 휴게실에서 몰래 동영상 시청을 했답니다. 부끄럽다 보지말라 말렸는데 평생 약 올릴수 있는 기회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p>	
9/25	<p>< 대전 mbc 창사 60주년 공개방송 > 안녕하세요:) 대전mbc 창사 60주년 공개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M모닝쇼 애청자 김경실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은하 디제이 그리고 모닝쇼 애청자분들을 직접 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더불어 센스 넘치는 진행을 해주신 유지은 아나운서, 통통 튀는 멘트로 웃음주신 정오의 희망곡 이윤주 아나운서도 뵈 수 있어서 대전mbc에 더 애정이 생겼습니다. 공개방송 2부에서 노래 선물 준비해주신 이세준, 왁스, 김연지님 덕분에 귀호강 실컷 했습니다. 라이브로 이 세 분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제 감성이 가득채워진 느낌입니다.</p> <p>이런 기회를 통해 많은 대전 시민들 또는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함께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개방송 또 추진해주시면 안될까요? :) 대전 mbc 정말 감사드립니다.</p>	
9/25	<p>< 창사 60주년 공개방송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 > 안녕하세요~ 진천 FM 모닝쇼 가족으로 대전MBC 창사 60주년 공개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닝쇼에서 공개방송한다고 하니 너무 가보고 싶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공개방송 갈수 있지? 모닝쇼에서 참석가능 문자가 왔을 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리 쳤는데 같은 교무실에 선생님께 무슨 일 있냐고 ? 물어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조퇴를 내고 가는거라서 ㅎㅎ</p>	

	<p>그래도 모닝쇼 찐 팬으로 당연히 연락 오면 참석해서 은하 DJ뿐아니라 항상 제 사연에 응원 해주시는 모닝쇼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참석하고 싶었습니다.</p> <p>요즘 업무, 수업 때문에 바쁜 일정이지만 주말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끝내고 다른 일들은 돌아와서 하면되지 하고 공개방송에 다녀 왔습니다.</p> <p>가족 모두 찐 팬이라서 아내도 참석 문자가 와서 둘이 처음으로 공개방송에 가는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p> <p>아내는 이은하DJ 모닝쇼 여신 응원 피켓을 만들고</p> <p>저는 고민하다가 대전MBC 60주년 떡을 해서 공개방송에 참석하는 모닝쇼 가족, 방송국 분들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떡 집에 연락했습니다.</p> <p>아쉽게도 60이 안된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트를 모양으로 결정했습니다.</p> <p>공개방송 당일 떡을 찾아서 방송국으로 도착해서 공개방송 한 분 한 분 떡을 나누어드리면서 라디오에서 숫자로만 알고 지내던 분들과 잠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p> <p>정오의 희망곡 주디와 유지은 아나운서도 봐서 좋았지만 모닝쇼의 여신 이은하디제이를 영접해서 너무 좋았습니다.</p> <p>사진 찍을 시간이 없을 듯 싶어서 은하디제이와 사진을 먼저 찍었습니다.</p> <p>공개방송에서 은하DJ가 기억해주는 애청자의 사연들 들으면서 감동과 함께 모닝쇼로 하여금 모두가 한 가족이 있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구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p> <p>모닝쇼 왕애청자 오정숙님과 정오의 희망곡 김도형님의 센스있는 말씀씨도 너무 좋았습니다.</p> <p>1시간동안 은하 DJ, 주디와 애청자분 사연이 들으면서 1시간이 10분처럼 빨리 지나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공개방송 처음 참석해선지 모르겠지만 2시간 내내 은하DJ와 애청자들의 사연들을 더 듣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p> <p>3, 4부에서는 유리상자 이세준, 왁스, 씨야 김연지의 노래를 그것도 라이브로 듣게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바로 앞에서 듣게 되니까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p> <p>모든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마음 속에도 저장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왁스의 엄마의 일기를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p> <p>너무 좋아서 정말 이런 기회가 많았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p>이런 기획을 해주신 방송국 관계분께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해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p> <p>진짜 ~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기획 부탁드립니다.</p>	
9/25	<p>〈 공개방송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 <p>대전mbc 창사 60주년 라디오 공개방송 지역민과 함께 음악과 함께 공개방송 초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p> <p>선화동에 있을때 공개방송에 와보고 도룡동에 와서는 처음 공개방송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구요</p> <p>대전mbc 대표 간판 얼굴 목소리 유지은 아나운서</p>	

	<p>16년의 경력에 빛나는 안방마님 대전MBC라디오의 살아 있는 전설 이은하 DJ 새싹 같은 씨약벼락 병아리 가 연상되는 귀요미 이윤주 DJ 직접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목소리로만 문자로만 소통하는 라디오에서 벗어나 직접 가까이에서 마주보며 얘기나누고 같이 호흡하며 함께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p> <p>미성의 목소리 이세준 파워풀한 힘이 인상적인 왁스 씨야 시절이 그리운 김연지 초대가수 노래와 토크도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공개방송으로도 현장에서 라이브로 보고 유튜브로 다시 보니 또 새롭더라고요</p> <p>이런 좋은 함께 할때 더욱 빛나는 공개방송 1년에한번이라도 정례화해서 애청자와 DJ들과 만나는 소통의 시간 가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9/26	<p>< 60주년 공개방송 감동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p> <p>저는 40년 가까이 대전MBC 라디오를 애청하고 있는 9330 애청자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처음 듣기 시작한건 중학생때 저희학교에서 MBC라디오 공개방송이 있었어요 그때 김준모님이 사회를 보셨었고, 초대가수로는 심신님이 오셨었지요. 벌써 35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걸보니 그때 공개방송이 준 감동이 꽤나 컸었나봅니다. 그날 이후로 라디오는 꼭 저와 함께했지요,</p> <p>12시부터 2시까지는 손지혜님이 진행하는 정오의희망곡을 들으면서 틈틈이 사연도 보냈구요. 그때는 지금처럼 문자번호가 아니라 팩스로 보내거나 사서함번호 써서 손편지를 보냈었지요. 4시부터 6시까지는 박진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가요산책을 들었었구요. 그리고보니 이때도 동생과 함께 각자 다른 직장에서 같은 라디오를 들었네요 힘든일이 있어서 사연 보내면 읽어주시면서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기쁠땐 함께 기뻐해주신 디제이님들이 계셨기에 지금까지도 엠비씨 라디오를 애청하게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합니다.</p> <p>서두가 길었네요. 대전MBC라디오 60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공개방송 생일잔치에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설렘반 기대반으로 동생이랑 일찍부터 서둘러서 준비했더니 방송 두시간 전에 도착 가슴은 두근반 세근반 쿵닥거리기 시작하고 건물 앞에 서는 순간 어찌나 행복하던지 저두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동생 얼굴보면서 하하호호 행복만땅 방송국 로비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임국장님이 로비에서 일찍부터 애청자들을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감동백배)</p>	

	<p>임국장님 어찌나 멋있으신지 가까이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눈도 못마주치고은게 지금도 후회가되네요. 임국장님을 비롯하여 은하님, 지은님, 윤주님, 유식님 모두 라디오속 목소리로만 접하다가 딱 제 눈앞에 서계시는데 다들 멋지고 아름다우셨어요. 저 너무 좋아서 기절할뻔 했어요. 지은님의 진행으로 은하님 윤주님 그리고 애청자 대표님들과 함께 나누는 진솔한 대화 또한 좋았구요. 특히, 은하님은 이른 아침시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그리고 맑고 밝으실까 체력관리 비결이 뭘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있었군요. (궁금하면 유튜브 방송 보세요)</p> <p>윤주님 첫방송 에피소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었어요. 애청자 대표님들 당황하지 않고 또박또박 어쩔 말씀들을 그리 잘하시는지 라디오에 얽힌 사연 들 잘들었습니다. 가수님들 섭외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님들이라 완전 감동 국장님 센스쟁이 유리상자 세준님은 20대때부터 얼마나 좋아했던지 바로 제 앞에서 라이브로 노래 불러주시는 데 심장이 멎는줄 알았어요. 왁스님의 엄마의 일기 평소에도 많이 듣는데 라이브로 듣다보니 수도꼭지 터져서 눈물이 줄줄 완전 감동이었구요 연지님 가창력에 또 한번 감탄 세준님의 밥밥밥 밥밥밥 밥밥밥 소리는 아직도 들립니다. 떡 선물주신 애청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메아리 선물도 감사했어요. 라디오 덕분에 결혼하셨다는 천사부부님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던데 더욱 행복하시길 바라요.</p> <p>아 그리고 저희 인원 체크 해주시던 직원분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애청자와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대전MBC라디오 사랑합니다. 이런기회 자주자주 만들어주세요. 또 뵙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p>	
9/26	<p>< 1FM 박선자의 시대공감은 종방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길 라디오를 애청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전부터 8시에 시작하는 박선자의 시대공감이 방송되지 않아 궁금합니다.</p>	<p>안녕하세요 대전MBC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선자의 시대공감은 시사 프로그램 재정비를 위해</p>

	<p>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좋지만 지역현안을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유익한 방송인데 아쉽네요.. 방송폐지인지 잠시 중단인지 궁금합니다.</p>	<p>9월 13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더 나은 기획과 제작진을 갖추고 머지 않아 1FM에서 지역시사, 정보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 지역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9/27</p>	<p>< 가을 나무에 아름답게 핀 60개의 꽃... > 안녕하세요 대전 MBC 어제 창사 60주년 참석해서 준비 진행 과정도 보고 사회라는 각계각층의 귀빈들을 직접 만나는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예인처럼 분장도 받아보고 또 예쁜 작가님의 너무너무 친절하고 자상한 도움으로 긴장과 걱정이 완화 되어 큰 무대에서 편함을 찾았습니다(작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청자 인터뷰 때 임세혁 유지은 MC 두 분이 예상밖의 간단한 질문만 짧게 해서 오히려 많은 실수는 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p> <p>또 전 모닝쇼 진행자이신 손지혜 선생님과 같은 테이블 배정으로 인사도 나누고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겼지만 방청과 촬영 그리고 방송 출연이라는 2주 동안의 설렘과 긴장감은 하늘이 준 기적이었고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p> <p>걷고 뛰며 지나온 나의 삶 속에 50년이라는 MBC 라디오 청취가 먼훗날의 기회가 되어 내가 가진 모든 추억들을 제치고 가장 앞자리를 차지 했습니다 오랜 시간 소홀하지 않았던 나의 대전 MBC를 도화지에 그리고 또 그리며 매일 하나씩 색칠해 나가려 합니다 그건, 아직도 그려야 할게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백년 믿음 백년 친구처럼 남은 40년도 곱게 채워 대전 MBC 창사 100주년에 진정한 애청자로 등극하고 싶습니다</p> <p>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전 MBC 모닝쇼도 그때까지 이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은하 씨라면 함께 100주년까지 충분히 진행 가능하리라 여깁니다 또 우리 모닝쇼 가족들도 같이 그날을 위해 함께 하라라 믿습니다</p> <p>한 번 맺은 인연 쉽게 놓지 않는 게 우리들의 정서니까요 지금은 모두가 생각하는 완연한 가을의 속삭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가을과 부딪히고 감정이 흔들리는 계절이기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편지 쓰는 마음으로 나를 어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p> <p>우리의 MBC는 표현이고 사랑입니다 지역민을 위해 오늘도 분주히 달리는 대전 MBC 임직원님들 늘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p>	